



농약뉴스

EPA, '갑상선 암' 독성 검토사항 제외

미국 EPA는 실험동물(Rodent)에 갑상선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사람에게서도 갑상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여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발암성분류기준 B2 농약으로 분류 관리해 왔다. 대표적인 성분이 ETU인데 이를 불순물로 갖고 있는 EBDC계 농약도 모두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EPA는 최근 수년간 Rodent의 갑상선 암 발생은 Rodent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균형을 조절하는 효소를 체내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 갑상선 암 발생기작이 근본적으로 Rodent와 전혀 다름을 확인, 검토해 왔었다.

이와 관련한 EPA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24개 물질을 평가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갑상선 암은 독성검토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로 인해 B2 농약으로 분류되어 관리해온 농약은 다른 문제가 없는 발암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확실시 된다.

WTO, 미국·인도 특허분쟁 중재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농약 및 의약품 특허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인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왔었다.

인도는 미국이 WTO에 재심을 제기한 '97년 6월 WTO의 Dispute Settlement Panel(분쟁조정 패널)이 취한 조치에 대해 상소한 바 있었다. 인도는 WTO의 패널이나 미국과 합의된 기한내에 필요한 변경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독일, EU 농약관리규정 입법화 지연

독일은 아직도 EU 농약관리규정(91/4/14)을 국내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U규정을 이행할 법안이 하원에서 지난 11월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이 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농약사용 규정 포함 여부로 금년 1월에 부결되었다. 통과 시한은 금년 6월이다.

2005년, Generic Pesticide 시장

특허기간이 소멸된 농약의 세계 시장규모는 1996년과 2005년 사이의 10년동안 54%가 증가하여 270억US\$ 규모가 될 것이라고 Enigma Marketing Research 및 Landell Mills Market Research가 보고했다.

즉, 2005년에 이 제품은 총 세계 농약시장 규모인 390억US\$의 69%를 점할 것이며 96년에는 175억US\$로서 53%를 점한 바 있다.



'96 세계 농약시장 3.6% 증가

영국농약공업회(BAA)의 보고서에 따르면 '96세계 농약시장은 3.6% 증가한 312.5억US\$이었으며, 1997년의 실질성장도 2~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증가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제초제 저항성 작물의 사용확대와 밀재배 면적을 확대하게될 The Freedom to Farm Act"에 따른 미국시장의 증대가 주요 원인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세계시장의 30.6%를 차지하여 점유비가 가장 컸으며 서유럽 26%, 동아시아 22.5%, 남미 11.9%의 순이었다.

특히 남미지역의 세계시장중 점유비가 '95년 11%에서 '96년에는 11.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농약사용이 '95년 대비 13.2%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8 중국 제초제시장 증가 예상

98년 중국에서의 제초제 판매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많은 농민이 제초제 사용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98년 중국의 총 농약 판매규모는 농업용이 28만톤이며 산림용, 보건용, 수출부분은 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농약시장 잠재력

'97년 러시아에서 농약을 처리한 작물재배 면적은 전년대비 19%가 증가된 2천8백만ha로 추산되었다.

약제별로는 전년대비 살충제가 3백만ha, 살균제가 1.9백만ha, 제초제가 1백만ha 증가했다. 그러나 이 면적의 총 재배면적은 21.5%에 불과한 규모다.

독일, 국립 농약등록기관 슬림화 착수

독일 정부는 농림성의 예산절감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3천6백명의 인원중 1천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으며 농림성 산하 농약등록기관인 BBA(Federal Biological Institute)도 7백명중 1백25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현재 1년)이나 검토건수(97년 1천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검임은 물론 GMCs(Genetically Modified Crops)의 승인시험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Novartis, 슬림화 계획 및 SDS 소유지분 매각

1996년 Ciba와 Sandoz의 합병으로 탄생한 Novartis는 1997년 Merck의 농약사업을 인수하면서 26개 살충제 품목을 11개로 슬림화할 계획이다.

그 배경에는 Generic 제품에 대한 투자효과 감소, NGOs 및 국제기구의 압력, IPM 기술용적 등이 있다. 슬림화계획의 1차 대상으로 오래된 약제인 Dichlorvos, Disulfoton, Formothion, Isazofos, Monocrotophos, Phosphamidon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영업의 핵심품목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Profenfos, Methidathion, Alongside Abamectin, Cyromazine, Diafenthiuron, Fenoxycarb, Lufenuron, Tau-fluvalinate와 신규품목인 Emamectinbenzoate, Pymetrozin과 Thiamethoxam 등 11개 성분이다. 또한 Novartis는 12년전 Sandoz와 Showa Denko가 합자하여 설립한 SDS Biotech의 총지분인 54.8%(7,500만\$)를 Showa Denko에 매각하는데 합의하여 4월에 매듭지을 계획이다. SDS Biotech가 판매 해온 Sandoz제품은 이후 Novartis가 맡게 된다.

유럽, Bar-Coding시스템 도입 검토

유럽 농약업계는 농약제품을 위한 유럽 전역의 Bar-Coding 시스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목록을 작성하고 판매망을 통하여 제품을 추적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유럽 농약공업연맹(ECPA)은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실험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한 모임을 계획해왔다.

인도, 농약 수출 급증

96/97년 인도 농약의 수출규모는 국내소비량의 30% 정도인 1만9천7백만달러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수출대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다. 주요 수출회사는 United Phosphorus, Gharda Chemicals 등이며 주요품목은 Cypermethrin, Isoproturon, Endosulfan 등 12개였다.

일본, EU GLP 상호인정 협의

일본 Chemical Week지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97년말 화학물질의 안전성 실험을 위한 GLP 기준의 통일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GLP 기준에 대한 일본/EU의 상호 승인 합의는 안전성 실험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OECD 계획의 일환이다. **농약정보**